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금융위기는 돌고 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의 고공행진이 생활속에서 체감되고 있다. 세계금융이 위태로워진 배경, 대한민국은 왜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학교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 까지. 5면에서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본다.

권규태 기자 202220003@m365.knsu.ac.kr



출처: EAI 동아시아연구원

코로나로 힘든데 전쟁까지

2019년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우리의 삶과 세계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소비가 줄어들었다. 그러자 경제는 빠르게 위축됐고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소비지출은 2.3% 감소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제공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경제에 다시 봄날이 오나 싶었지만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두 나라의 전쟁은 세계 경제를 크게 흔들어놨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가스관을 통해 유럽 20여 개 나라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다. 공급되는 가스는 유럽 전체 가스 수요의 30%에 해당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세

계 3대 곡창지대(곡식 생산량이 많아 곡식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유럽과 세계에 많은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 세계 곡물 시장 점유율은 밀 27%, 보리가 23%에 달할 만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을 한, 미, 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돈 풀기’로 해소하려고 한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와 밀, 보리 등의 곡물가격이 치솟으면서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 앞선 데 댈친 격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급증하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를 봉쇄하는 정책)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의 엔진이 멈추자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온 것이다.

세계경제에 영향을 받는 한국

용이 마련되지 않을뿐더러 앞선 데 댈친 격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분양이 안 돼 대출을 갚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 우리 학교 앞에서 또 일어나고 있다?

레고랜드와 김진태 도지사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연쇄 부도가 이미 시작됐다. 한국체육대학교 재학생이라면 후문부터 둔촌동역까지의 거리에 큰 공사 현장을 한 번쯤 봤을 것이다. 해당 공사는 ‘둔촌주공 아파트(이하 둔촌주공)’의 재건축 현장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칭호를 가진 대규모 재건축인 만큼 현재 공사에 4개의 대형 건설사(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둔촌주공도 레고랜드의 영향을 받을 파할 순 없었다. 둔촌주공은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앞으로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로 자금을 마련하였고 만기가 끝난 7,000억 원의 사업비를 ABCP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려고 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경직과 높은 금리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4곳에서 자체 자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건설사는 회사에서 보유한 현금으로 생명선을 연장할 수 있더라도 중소 시행사나 조합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어려운 사업체는 더욱더 빠르게 부도를 낼 것이다. 또한, 시공 자체가 불가능한 현장들이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우리나라 경제도 위기에 봉착했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한민국의 무역 의존도(수출입 대비 GDP 비율)는 수출 35.6%, 수입 33.9%로 약 70%에 육박한다. 그렇다 보니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창일 때인 10월 1일 기준으로 달러는 1,440원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하자, 연방준비제도(Fed, 미국 중앙은행 시스템을 일컫는 기관)에서는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여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게 된다.

금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원화의 금리가 낮고 일본의 엔화가 금리가 높으면 투자자들은 금리가 낮은 원화를 빌려 엔화를 사들이고 엔화에 투자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화는 물량이 풀리는 반면, 엔화는 물량이 없어진다. 돈

이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번 상황도 원화의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 달러의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달러 수요가 증가하며 달러가 비싸지게 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달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기준금리(다양한 금리체계에 기준이 되는 중심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금리의 인상은 가계의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부동산의 특성상 고액의 돈을 들여야 하므로, 사람들은 대개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들인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떨어졌다. 결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끼고 있던 사람들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었고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의 가격은 날이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앞친 데, 레고랜드로 댈친 격

주택 수요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받



강원도 춘천시 중도에 위치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정문 전경이다.

출처: 매일경제

“
시장은 확신을 요구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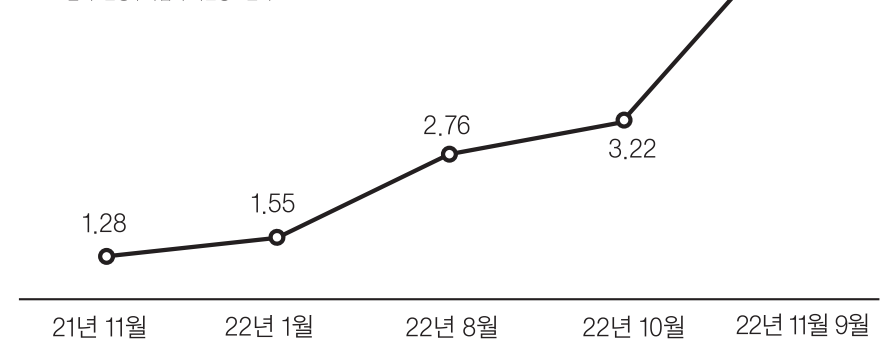
ABCP 채권이란 쉽게 말해 레고랜드가 앞으로 벌 돈을 담보로 투자를 받는 것이다.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고, 레고랜드가 돈을 잘 벌어서 갚으면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 이슈 등으로 투자를 받기 어려워지자 강원도에서 ABCP 채권에 대한 채무 보증을 썼다.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보증을 서자 ABCP 채권은 지방채급의 신용도를 갖게 되었고, 국내 증권사 10곳, 운용사 1곳이 채권에 투자했다. 하지만, 채권의 만기일 하루 전인 9월 28일, 강원도도 지사 김진태는 기자회견에서 GJC에 대한 회생 신청을 결정했다. 돈을 못 갚겠다는 것이었다.

지방정부인 강원도에서 지급보증을 선 채권이 부도가 났다는 사실에 채권 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일반 회사채는 물론 한국도로공사와 과천도시공사 등 신용도 최상급이던 공사채들도 줄줄이 유찰되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기업은 채권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으로 사업과 투자를 한다. 하지만,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자 자금 마련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건설사의 경우에는 더욱더 힘든 실정이다. 건설사는 채권을 발행하고 분양을 통해서 추후 대출을 갚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채권이 안 팔리니 건설 비

CP금리 추이 도표 (단위 %)

21년 11월에 1.28%에 불과하던 기업어음(CP)금리는 2022년 11월 9일에는 5.02%까지 치솟았다.

출처=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학교 앞에서 재건축 사업 중인 둔촌주공(울림파크 포레온)이다.

출처: 연합뉴스

회사채의 신용등급 표

AAA - 상환능력 최고 수준
AA - 상환능력 매우 우수
A - 상환능력 우수
BBB - 상환능력 양호
BB - 상환능력 불안정
B - 상환능력 부족
CCC - 채무 불이행 가능성 있음
CC - 채무 불이행 가능성 높음
C - 채무 불이행 가능성 매우 높음
D - 상환 불능 상태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선 아이원제일차의 채권 등급은 지방채 급인 AAA등급에 해당했다.

결론(기자생각)

“위기는 계속됩니다. 돌고 돌죠.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한 것 같죠? 전혀요.”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윤정학(유아인)이 한 말이다.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는 계속된다. 위기는 10년 정도를 주기로 돌고 돈다. 그리고 2008년 경제 위기를 이후로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갔다. 학생들은 대부분 사회에 나서서 겪은 첫 금융위기일 것이고,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항상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